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말라기 —

김준현*

『새한글』은 기존 번역본들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히브리어 성서 원문의 구조, 어원 그리고 어순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은 젊은 세대를 위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새한글』이 시작될 때부터 기준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번역된 『새한글』의 특징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어 성서는 BHS⁵를, 그리고 한글 역본은 『개역개정』과 『새번역』, 『공동개정』을 『새한글』과 비교하여 볼 것입니다. 외국어 성서는 영어 역본인 ESV와 NET, 독일어 역본인 LB와 BB를 참고하여 비교할 것입니다.

1.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말 1:1).

히브리어 문장의 어순은 동사가 먼저이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도 한글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어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사 + 주어 + 목적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2,500년 전에 한 나라의 공용어 지위를 잃어버린 히브리어는 정교하게 발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각 단어에서 격어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루터대학교 구약학 교수.
mentorcloud@gmail.com.

미를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앞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라기 1: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BHS ⁵	מִשָּׁא דְּבִרְיָהוָה אֶל־יִשְׂרָאֵל בְּיַד מְלָאכִי: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u>경고</u> 라
『새번역』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u>경고</u> 하신 말씀이다.
『공동개정』	야웨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u>경고</u> .
『새한글』	<u>무거운 말씀</u> .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 말라기를 통해 주신 것이다.

1.1. 차이점 관찰

히브리어 단어 מִשָּׁא(맛싸)의 의미는 명사로서 사실 한글로 번역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인 HALOT에 의하면 영어로 ‘Oracle’ 또는 ‘Utte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한국어로 1대 1 번역이 어렵습니다. Oracle은 ‘예언, 신탁’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말 성서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언, 신탁’이라는 말로는 말라기 전체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서는 『새한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라는 말도 역시 말라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경고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에서는 ‘무거운 말씀’이라고 번역하여 오히려 말라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포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순에서 보면 히브리어의 어순을 살리고 있습니다. 번역 성서 중 『새한글』을 제외하고는 영어 역본들만이 히브리어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מִשָּׁא(맛싸)는 동사가 아님에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도 ‘무거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u>The oracle</u> of the word of the LORD to Israel by Malachi.
NET	This is <u>an oracle</u> , the LORD’s message to Israel though

Malachi:

- BB **Eine prophetische Botschaft:** Das Wort des HERRN kam zu Israel durch den Propheten Maleachi.
- LB Dies ist **die Last**, die der HERR ankündigt über Israel durch Maleachi.

ESV와 NET는 히브리어 **נְבִיאָה**(나비야)에 해당하는 ‘Oracle’을 가급적 앞으로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ESV에서는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되지 않아 읽기에 어색합니다. NET는 읽기에 어색하지 않게 번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Oracle이 강조되는 것이 약화되었습니다. BB는 ‘Botschaft’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발표하다’, ‘통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LB에서는 ‘Last(부담, 짐)’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한글 성서 역본은 『새한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글 문장에 어색하지 않도록 번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경고’라는 단어가 거의 문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 영어 역본과 독일어 역본에서는 히브리어 **נְבִיאָה**(나비야)에 해당하는 단어가 앞으로 오게 번역하였습니다.

(3)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는 **נְבִיאָה**(나비야)를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말라기서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4) 그것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만으로 쉽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고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 ‘무거운 말씀’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말라기서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거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위치시키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포처럼 만드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의 번역은 히브리어 성서의 의도를 가장 잘 살린 것입니다.

2. 히브리어 접속사의 구별이 필요합니다(말 1:12).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ו(베)입니다.¹⁾ 이 접속사는 순접과 역접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문맥에 맞게 번역해야 합니다.

BHS ⁵	וְאַתֶּם מְחַלְלִים אוֹתוֹ בְּאִמְרָכֶם שְׁלֹחַן אֲדֹנֵי מִנְאֵל הוּא וְנִיבֹה אֵכְלוֹ:
『개역개정』	<u>그러나</u>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새번역』	<u>그런데</u>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공동개정』	<u>그런데</u>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 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새한글』	<u>그러나</u> 너희는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식탁, 그게 더럽혀졌군. 그런데 그 열매, 그 음식은 가볍게 보아도 괜찮아!’

2.1. 차이점 관찰

『새한글』과 『개역개정』에서는 히브리어 접속사를 ‘그러나’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그런데’로 번역했습니다. 한글에서 ‘그러나’와 ‘그런데’는 자주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그러나’는 “「부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²⁾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11과 1:12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앞뒤의 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 A. H. Bartelt, *Fundmental Biblical Hebrew* (St. Louis: Concordia Academic Press, 2000), 25.

2)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7%B8%EB%9F%B0%EB%8D%B0> (2025. 03. 01.).

2.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But you profane it when you say that the Lord's table is polluted, and its fruit, that is, its food, may be despised.
NET	"But you are profaning it by saying that the table of the Lord is common and its offerings despicable.
LB	Ihr aber entheiligt ihn damit, das ihr sagt: »Des HERRN Tisch ist unrein, und sein Opfer ist für nichts zu achten. samt seiner Speise.
BB	Ihr aber entehrt ihn, indem ihr sagt: »Man darf den Tisch des HERRN unrein machen, und das Speiseopfer für ihn darf man vernachlässigen

ESV나 NET, 그리고 BB와 LB에서도 “그러나”로 번역될 수 있도록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히브리어 접속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새번역』과 『공동개정』만 ‘그런데’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두 번역본은 말라기 1:11과 1:12가 연결되면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2) 『새한글』과 『개역개정』 그리고 나머지 외국어 역본들은 모두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3) 『새한글』에서는 말라기 1:11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1:12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11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향과 깨끗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2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1:11과 1:12는 ‘그런데’가 아닌 ‘그러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한글에서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서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역사적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말 2:3).

히브리어 성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와 2천 년 이상의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볼 때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2천 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역사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3.1. 차이점 관찰

말라기 2:3을 살펴보겠습니다.

BHS	הֲנִי נֹעַר לָכֶם אֶת־הַזֶּה וְזִרְתִּי פָרֶשׁ עַל־פְּנוֹיְכֶם פָּרֶשׁ חֲנוּכָּם וְנָשָׂא אֶתְכֶם אֵלָיו:
『개역개정』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u>똥</u>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u>똥</u> 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새번역』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u>똥</u> 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u>똥</u> 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u>똥</u>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공동개정』	너희 팔을 자르고, 너희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u>똥</u> 째 너희 얼굴에 끼얹고 내 앞에서 들어 내어 버릴테니, 두고 보아라.
『새한글』	보라,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후손을 혼내 주겠다. 그러고는 내가 희생제물 창자의 <u>오물</u> 을 너희 얼굴에 흘 뿌리겠다. 너희 명절들의 <u>오물</u> 을 말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그 <u>오물</u> 있는 데로 끌고 갈 것이다.

『새한글』을 제외하고는 ‘오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한글』과 『공동개정』은 ‘내장’ 혹은 ‘창자’라는 단어를 번역하였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Behold, I will rebuke your offspring, and spread <u>dung</u> on your faces, the <u>dung</u> of your offerings, and you shall be taken away with it.
NET	I am about to discipline your children and will spread <u>offal</u> on your faces, the very <u>offal</u> produced at your festivals, and you will be carried away along with it.
LB	Siehe, ich will euch den Arm zerbrechen und euch Kot ins Angesicht werfen, den <u>Kot</u> eurer Feste, und man wird euch zu ihm hinaustragen
BB	Wegen eures Verhaltens bedrohe ich eure Ernte und werfe euch <u>Abfall</u> ins Gesicht. Es ist der Abfall eurer Feste. Man trägt euch dorthin, wo man ihn entsorgt.

ESV에서는 ‘dung(똥)’을, NET에서는 ‘offal(대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B에서는 ‘Kot(똥)’을, BB에서는 ‘Abfall(폐기물, 쓰레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말라기 2:3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들어야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더 확장하면 들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오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학개 1:5, 7에 나오는 말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오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수 치스럽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된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똥을 얼굴에 바른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똥을 제거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다는 뜻입니다.

4. 복수의 의미는 살려야 합니다(말 2:17).

히브리어 명사는 ‘성(性), 수(數), 격(格)’에 따라 변화됩니다. 이 중에서도 수(數)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수(數)에 있어서 때로는 부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확하다기보다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너 개, 혹은 네다섯 개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 차이점 관찰

말라기 2:1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S ⁵	הוֹנֵעֲתֶם יְהוָה בְּדַבְרֵיכֶם וְאַמַּרְתֶּם בְּמֶה הוֹנֵעֵנוּ בְּאַמְרֵכֶם כָּל־עֲשֵׂה רָע טוֹב בְּעֵינֵי יְהוָה וּבָהֶם הוּא חָפֵץ אוֹ אֵי־הָאֱלֹהִי הַמְשַׁפֵּט:
『개역개정』	<u>너희</u> 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u>너희</u> 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새번역』	“ <u>너희</u> 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 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공동개정』	<u>너희</u> 가 하는 말은 야훼의 화만 돋우어드리는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화를 돋우어드렸다는 것이냐고 하지만, 너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야훼께서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눈에 들어 귀여워해 주신다! 하느님이 공변되시다고? 그런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새한글』 (예언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가 성가시게 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도 여호와와 눈에는 좋아 보이지. 그들을 여호와께 마음에 들어 하시지.”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라고요.

『새한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 단어에 ‘너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분명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복수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You have wearied the LORD with your words. But you say, “How have we wearied him?” By saying, “Everyone who does evil is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delights in them.” Or by asking, “Where is the God of justice?”
NET	You have wearied the LORD with your words. But you say, “How have we wearied him?” Because you say, “Everyone who does evil is good in the LORD’s opinion, and he delights in them,” or, “Where is the God of justice?”
LB	Ihr macht den Herrn unwillig durch euer Reden! Ihr aber sprecht: »Womit machen wir ihn unwillig?« Damit, dass ihr sprecht: »Wer Böses tut, der gefällt dem HERRN, und an solchen hat er Freude«, oder: »Wo ist der Gott, der da straft?«
BB	Ihr macht den HERRN mit euren Worten müde. Ihr aber fragt: »Wodurch machen wir ihn müde?« Ihr tut es, indem ihr sagt: »Der HERR findet jeden gut, der Böses tut. An ihm hat er Gefallen.« Oder: »Wo ist der Gott des Rechts?«

ESV와 NET에서는 ‘you’를, BB와 LB에서는 ‘ih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문맥을 통해 ‘you’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편 독일어는 복수형 ‘당신들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는 단어 자체에서 단수 복수가 구별되는 데, 이 단어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이것 역시 독일어가 가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단수, 복수 구분이 분명하지만 그중에서도 『새한글』이 선택한 단어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복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새한글』을 제외한 다른 한글 번역본은 모두 ‘너희’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선택하면서 복수를 의미하는 조사인 ‘들’을 포함시키지 않아 히브리어 복수의 의미가 반감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2) 『새한글』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보다 명확하게 복수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3) 영어와 독일어 역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어는 성서 히브리어처럼 격변화 어미가 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 구별이 혼동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2인칭 대명사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문맥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글에 있는 ‘여러분’이 훨씬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4) 말라기서의 저자는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너희’라고 한정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너희’로 번역하게 되면 청중들로 의미가 한정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려야 합니다(말 3:1).

5.1. 차이점 관찰

BHS ⁵	הֲנִי שְׁלַח מַלְאָכִי וּפְנֹתֶיךָ לִפְנֵי וּפְתָאם יָבוֹא אֶל־הֵיכְלוֹ הָאֵדוֹן אֲשֶׁר־אַתָּם מִבְּקָשִׁים וּמִלֵּאךְ הַבְּרִית אֲשֶׁר־אַתָּם חֹפְצִים הַיְהוּבָא אֲמַר יְהוָה צְבָאוֹת: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u>내 사자</u> 를 보내 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

『새번역』	<p>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u>사자</u>가 임하실 것이라</p> <p>“내가 <u>나의 특사</u>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u>특사</u>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p>
『공동개정』	<p>“보아라, 나 이제 <u>특사</u>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p>
『새한글』	<p>(하나님) “보라, 내가 <u>나의 소식꾼</u>을 보내 주겠다. 그가 나의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던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언약의 <u>소식꾼</u>이다. 보라, 그가 오고 있다”</p> <p>(예언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p>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מַלְאָךְ(말아크)를 ‘소식꾼’으로 번역하였으며, 『개역개정』은 ‘사자’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특사’로 번역하였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p>“Behold, I send <u>my messenger</u>, and he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And the LORD whom you seek wi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and <u>the messenger</u> of the covenant in whom you delight, behold, he is coming, says the LORD of hosts.</p>
NET	<p>“I am about to send <u>my messenger</u>, who will clear the way before me. Indeed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and <u>the messenger</u> of the covenant, whom you long for, is certainly coming,” says the LORD of Heaven’s Armies.</p>
LB	<p>Siehe, ich will <u>meinen Engel</u> senden, der vor mir her den Weg bereiten soll. Und bald wird kommen zu seinem Tempel der Herr, den ihr sucht; und <u>der Engel</u> des Bundes, den ihr begehrt, siehe, er kommt!, spricht der HERR Zebaoth.</p>

BB Der HERR Zebaoth sagt: Seht, ich schicke meinen Boten.
Er soll mir den Weg bereiten. Der Herr, den ihr sucht,
kommt bald zu seinem Tempel. Gebt acht: Der Engel des
Bundes, über den ihr euch freut, ist schon unterwegs.

ESV와 NET는 ‘messenger’ 즉, ‘전달자’ 혹은 ‘사자’로 번역하였습니다. LB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מַלְאָכִי(말라키)를 ‘Engel’, 즉 ‘천사’로 번역하고 있고, BB에서는 ‘Boten(사자)’과 ‘Engel’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히브리어 단어 מַלְאָכִי(말라키)에 1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 접미어가 붙은 מַלְאָכִי(말라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³⁾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 즉 사람 이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책 제목으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여기 말라기 3:1에 쓰인 이 단어는 사람 이름, 즉 예언자의 이름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영어 역본에서는 מַלְאָכִי(말라키)를 ‘messenger’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역본에서는 ‘Engel’과 ‘Bote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영어의 의미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 역본에서 천사와 사자를 같이 사용하여 번역한 것은 천사와 사자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 같이 인식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사자’, ‘나의 특사’, ‘특사’로 번역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의미 그 이상을 지닌 존재로 해석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 ‘나의 소식꾼’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소식꾼’은 매우 적절한 선택입니다.

3) B. T. German, *Concordia Commentary: Haggai and Malachi*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24), 312-313, 460-466을 참고하십시오.

6. 소결

『새한글』은 기존 번역본들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과감한 번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젊은 세대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새한글』은 반드시 필요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제어>(Keywords)

말라기, 새한글성경, 히브리어 어순, 단어의 의미, 역사적 사실.

Malachi, New Korean Translation, Order of Biblical Hebrew, meaning of the word, Historical fact.

(투고 일자: 2025년 3월 4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5월 17일)